

신민화 현실과 시대를 산 작가들의 초상, 그리고 My Story

한국의 자전적 소설?

눈이 번쩍 떠었다. 매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가히 소설의 바다라 할 수 있는 '소설코너'에서 무수한 소설들을 제치고 내 손은 《꽃을 잃고 나는 쓴다》와 《구보 씨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어 들었다.

독자들은 묻는다. 당신의 소설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가. 강경애로부터 채만식에 이르기까지. 소설을 읽는 동안 나는 등푸른 물고기처럼 펄떡이는 작가들의 육성과 만난다.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기쁨이었다. 다양색의 주인공으로 분한 소설가들은 신민화된 조국의 현실과 시절에 휘말린 불우한 개인사까지 제 목소리 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 시대 소설가들의 가장 큰 미덕이란 건 바로 그 직설과 투명함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그들의 정신에서부터 발톱 끝까지 마음과 몸을 다해 아파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잠시 침묵해야겠다.

하성란 (작가)

책표지 뒤에 프린트되어 있는, 작가 하성란의 추천의 글 또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직설과 투명함. 마음과 몸을 다해 아파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 나의 고민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바로 나의 고민이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 그 안의 경제사정을 확인했다. 2만1,700원. 두 권의 책값으로 1만8,000원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3,700원뿐이다. 3,700원으로 과연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책을 사는 건 포기하자... 나는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1권인 《꽃을 잃고 나는 쓴다》의 책표지를 매만지며 서 있었다. 그때, 한때의 여학생들이 내 어깨를 밀치며 소설 코너로 몰려왔다.

“야! 이것 봐, 이것 봐! 얼마나 이쁘다.”

“와우! 짱인데. 사라, 사!”

소설 코너에 와 서자마자 여학생들은 책 한 권을 들고 계산대로 뛰어갔다. 그들의 대화에는 책의 제목도, 저자도 등장하지 않았다. 단지, 이쁘다는 말밖엔. 충격이었다. 요즘 여고생들이 책을 고르는 기준은 바로 저것, 이쁘다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남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스스로는 '소설가'임을 자부하는 나는 소설코너의 매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기어들어갔다는 건 사실 과장이고 매대 앞에 쪼그려 앉았다). 과연 어떤 소설이 여학생들에게 선택되는지를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그 순간 나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소설이 여학생들에게 먹혀드는지를 알아내 나도 그런(잘 팔리는) 소설을 쓰겠다는, 그리하여 나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사심이 가득했다. 나라고 왜 돈 욕심이 없겠는가?

다른 코너에 비해 '소설 코너'는 한산했다. 소설 구매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나는 《꽃을 잃고 나는 쓴다》를 읽기 시작했다.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첫 테이프를 끊은 소설은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 원〉이었다.

무엇보다도 양산이 가지고 싶어 영 죽겠두구나. 지금은 여염집 부인들도 양산을 가지지만 그때야말로 여학생이 아니구서는 양산을 못 가지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 양산이야말로 무언중에 여학생을 말해 주는 무슨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으리라. 철없는 내 맘에 양산을 못 가지면 고향에도 가고 싶지를 않두구나. 그래서 자꾸만 울지 않았겠니. 한 방에 있는 동무가 이 눈치를 채었음인지 혹은 나를 놀리누리구 그랬는지는 모르나 대 부러진 낚은 양산 하나를 어데서 갖다 주두구나. 나는 그만 기뻐다. 그러나 어쩐지 화끈 달며 땀 그 양산을 가질 수가 없두구나. 그래서 새침하고 앉았노라니



《구보 씨의 얼굴》《꽃을 잃고 나는 쓴다》 방민호 엮음 | 북폴리오 | 각권 33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동무는 킁 웃으며 나가두구나. 그 동무가 나가자마자 나는 얼른 양산을 쥐고 펼쳐 보니 하나도 성한 곳이 없더라. 그때 나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슬픔이 목이 막히도록 치받치두구나. 그러나 나는 그 양산을 버리지지는 못하였다.

《꽃을 잃고 나는 쓴다》 25~26쪽 <원고료 이백 원> 강경애

이 대목에서 나는 코를 들이마셨다.

“그래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 듯싶소?”

그 물음에 나는 혀를 깨물고 참았던 눈물이 샘솟듯 쏟아지두구나. 그 순간에 남편이야말로 돌이나 깎아놓은 듯 그렇게도 대답하고 안타깝게 내 눈에 비치어지두구나. 무엇보다도 제가 결혼 당시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반지 하나 못 해주었고 구두 한 켤레 못 사주지 않았겠니. 물론 그것이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리 한 것이니 내가 그만한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생긴 오늘에 그것도 남편이 번 것도 아니요,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의 원이던 반지나 혹은 구두나를 선선히 해 신으라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사내는 그런 것은 염두에도 먹지 않는 모양이더라.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웠다.

《꽃을 잃고 나는 쓴다》 27쪽 <원고료 이백 원> 강경애

이제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태어나 처음 갖게 된 200원. 그것도 내가 번 내 돈. 양산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러나 남편은 헐벗은 동지들을 위해 그 돈을 쓰자고 하니. 강경애의 마음을 나는 십분 이해했다. 아니,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다. 나는 매대 앞 땅바닥에 털퍼덕 엉덩이를 내리눴다.

“인제 당신이 내려오셨으니 내년 봄에나 학교에 날도록 하오!”

아내는 부속부속한 얼굴에 얽은 미소를 띠며 이런 말을 천연히 하는 데는 그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런 말을 속 하였다.

“나는 또 갈 터이야!”

이 말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은 별안간 새파랗게 변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말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어데로 또 가... 그럼 무엇 하러 왔소? 이번에 또 갈 터이면... 아니 우리 삼모자를 모다 죽이고 가오! 내 죽어도 못 가게 하든지 내가 쫓아가든지 할 걸! 못가! 가긴 어데로가...”

하고 아내는 이를 ‘박박!’ 간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텀뵙! 텀뵙! 쏟아져 그의 아원 볼 위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도 죽이러 왔다. 너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는 서릿발같이 냉랭한 태도로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훌쩍거리던 아내는 별안간 울음을 내놓았다. 그 바람에 어린애도 따라 운다.

“...아! 아! 한우님 맙시사!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태 알뜰히도 고... 고생을 짓시키다가 인제 와서는 또 죽이겠대요? ...시집온 지가 근 이십 년 되니 못 한 가지를 하여주었나? 잘 먹이기를 하였나? 자식을 다섯이나 낳으니 그것들을 하나나 키워주었나? ... 흑! 흑! 흑!... 아이고... 그것들은 제 신세 좋게 잘들 죽었지! 세 년들이 그저 다 살았어보아! ...자식 둘 남은 것도 주체를 못하여서 못 가르치고 못 먹이다가 나중에는 그것들까지 죽이겠다고. 글썽-그 것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아! 어미 애비 잘못 만난 죄로...아! 아! 아! 아!...”

“듣기 싫어! 이게 무슨 청승맞은 소리냐? 이 당장에 떼어지지 못해서!”

하고 그는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 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죽여! 죽여! 자! 어서 죽여!”

아내도 마주 악을 쓰며 대들었다.

《꽃을 잃고 나는 쓴다》 56~57쪽 <오매둔 아버지> 이기영

처자식을 죽여 차라리 가난을 끊어버리고야 말겠다고 고향에 내려간 아버지.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천만 뜻밖에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하러 나선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인제는 마음을 잡아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보려는 것이 아닐까, 미쁘고 기쁜 마음으로 소설가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본다. 이기영의 단편, <오매둔 아버지>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꽃을 잃고 나는 쓴다》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중, 겨우 앞부분 두 편을 읽었을 뿐인데도 내 눈은 퐁퐁 붓고 말았다.

물은 드디어 안마루의 마룻전을 스치며 빠져나갔다. 어디선지 조그마한 조신 나막신 한 짝이 떠올라와서는 마룻전에 부딪치며 뱅뱅 감돌고 있었다.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처량하면서, 잠깐 현실을 잊어버리고 나막신 짝만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뒷집 학생이 철부덕철부덕 헐떡거리며 쫓아들어 왔다. 일을 당하는 족족 맨 먼저 달려와서는 세간도 날라주고 하며 고마이 구는 학생이었다.

“아, 왜 이러구 기세요?”

“쫓! 관찮은 상 불려서…”

나는 미소를 하면서 천연스럽게 대답을 했다.

“오온! 관찮은 게 다 뭐니까? 어서 내노세요!…”

그리고는 휘휘 둘러보다가, 다짜고짜 마루 앞으로 뛰어가더니, 세간을 담아 논 퀘짜 하나를 불끈 둘러메고는 철벽거리며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는 아내와 경호도 방에서 부담과 보따리를 하나씩 집어내다가

이고 안고 허둥지둥 달려 나가고.

그와 엇갈려, 종씨네 아주머니와 사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쫓아 들어오고, 뒷집 한 서방은 지계를 지고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제가끔 닥치는 대로 한 개씩 들어 내가고.

떠버리라는 별명을 듣는, 윗집의 공장 십장은 삼을 둘러메고 달려들더니, 사립문으로 집을 내가기 웅색하고 더디대서 뒤결의 울타리를 부숴뜨려 터놓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멧이 더 와서 울력을 해주었고, 10여 명이 어울려 뻥질나게 들락날락하는 동안 순식간에 집안은 말끔하니 죄다 치워졌다. 그 거진 죄다 치워졌을 무렵하여 문득 나는, 언젠적부터인지 그들과 함께 이리 달고 저리 달고 하면서, 세간을 날라 내가기에 정신 없이 날뛰며 있는 나 자신을 비로소 발견했다.

《구보씨의 얼굴》 305~306쪽 <집> 채만식

눈물에 뿌옇게 흐려진 시야로 한 떼의 여학생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도 역시 여학생들은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고르듯이 표지가 예쁘거나 부록이 달려 있는 소설을 사 가지고 나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마음은 한없이 편해져 있었다.

팔리지 않는 소설이면 어떤가?

어렵게 장만한 집, 물난리가 날 때마다 무너져 가는 집, 중국에는 폐허가 되어 버릴 집, 그러나 정신없이 날뛰며 세간을 날라내고 있는 작가, 채만식처럼….

나는 코를 한 번 팽, 풀고는 계산대로 가서 ‘한국의 자전적 소설’ 1, 2권의 값을 치렀다. 내 지갑에는 달랑 3,700원이 남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웠다. ❦